

“4000원에 한 끼”...가성비 좋은 구내식당 복직

중동 정세 불안 속에 고물가 시대 ‘런치플레이션’ 심화
치솟는 외식 물가...효율 중심 ‘생존형’ 소비 흐름 지속

직장인 이모씨(27)는 최근 고유가 여파 등으로 한 끼에 1만원 안팎까지 높아진 점심값을 매번 감당하기 부담스럽다. 사회 초년생으로 한 푼이 아쉬운 상황 속 그가 찾아낸 해결책은 ‘구내식당’이었다. 평소 입맛에 맞지 않아 평소에 잘 이용하지 않던 구내식당을 매일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지금 같은 고물가 시대에 구내식당은 최고의 가성비 식당이다”며 “기름값이 올라 출혈이 큰데 식비까지 쓸 수는 없는 노릇이다”고 토로했다.

점심시간 식당 대신 구내식당과 편의점 등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 속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런치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식당 대신 구내식당 등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구청사 내 구내식당 모습.

기 때문이다. 15일 국가데이터 소비자물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 외식 부문 지수는 127.28을 기록하며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기준연도인 2020년 외식 물가를 100으로 기준 삼아 이보다 높으면 소비자 부담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외식 물가는 4~5%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며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 직장인들 사이에서 구내식당은 일반 식당 절반 수준의 가격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하고 있다.

가격 경쟁력과 품질을 모두 잡은 ‘가성비 식사처’로 구내식당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날 점심시간 무렵 광주 서구청



‘3고’(고환율·고유가·고물가) 속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런치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식당 대신 구내식당 등으로 향하는 직장인들의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다. 사진은 서구청사 내 구내식당 모습.

2층에 위치한 구내식당은 식사를 위해 찾은 이들이 북적였다.

식당 내부 150여석은 이미 가득 차 빈 자리를 찾을 수 없었고, 식당 안은 식판

을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또 배식대부터 시작된 100여m의 줄은 복도까지 늘어났다.

이곳은 4000원의 식대로 5가지 이상의

반찬과 밥, 찜계 등이 제공된다. 모든 식재료는 국산을 사용한다.

구내식당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1시까지만 운영되지만 최근 사람이 몰

리면서 재료가 소진돼 조리 마감되기 일췌다.

하루 평균 350여명이 이용하던 구내식당은 최근 40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고물가 부담에 점심값을 아끼려는 직원들이 늘면서 구내식당은 매일 점심 복제통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 박모씨는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기본 1만원이 넘는다. 밥값이 무섭다. 구내식당에서는 4000원이면 훌륭한 식사를 할 수 있어 즐겨 찾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산 수입 식재료비 상승, 인건비 인상, 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에 따라 당분간 외식 물가는 오름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상용 경제학박사는 “가계의 지갑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구내식당의 인기는 앞으로도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 기조 속에서 가성비와 효율 중심의 소비로 향하는 흐름은 이제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이 됐다”고 전했다.

윤상용 기자 yu1404@gwangnam.co.kr

삼성전자, 인공지능 TV 대중화 시대 연다

2026년형 TV 신제품 출시
혁신 AI 기능 콘텐츠 차별화
프리미엄 라인업 전면 개편



삼성전자 모델이 설명한 화면의 ‘HDR+10 게이밍’과 높은 명암비의 ‘트루블랙’을 적용한 2026년형 OLED 모니터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혁신적인 AI 기능을 탑재한 2026년형 TV 신제품을 출시하며 ‘AI TV 대중화 시대’를 선언했다. 삼성전자는 15일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마이크로 RGB, OLED, 네오 QLED, 미니 LED 등 전 라인업에 걸친 신제품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신제품의 핵심은 통합 AI 플랫폼인 ‘비전 AI 컴패니언’이다. 이 제품은 TV 시청 중인 사용자에게 AI 기술 기반으로 최적화된 답변과 정보 등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즐겁고 편리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

또 빅스비,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업계 최다 AI 서비스 플랫폼을 탑재했다.

TV 신제품 라인업에는 한층 강화된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AI 축구 모드 프로’, ‘AI 사운드 컨트롤 프로’ 등의 AI 기능이 새롭게 탑재됐다. ‘AI 축구 모드 프로’는 AI가 실시간으로

로 축구 경기 장면을 분석해 뚜렷한 색감의 화질을 제공하고 공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밀하게 표현한다.

또 생생한 관중 함성소리와 해설 등을 지원해 마치 경기장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준다.

‘AI 사운드 컨트롤 프로’는 영상 속 대사, 배경 음악, 효과음 등 다양한 사운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기능이다. 또 해설자 음성과 관중의 함성 등 각각의 음원을 분리해 선택적으로

조절하거나 음소거 할 수 있어 콘텐츠 몰입도를 높인다.

삼성전자는 프리미엄부터 보급형까지 라인업을 전면 개편하고 신규 라인 ‘미니 LED’를 공개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미니 LED’ TV는 정교한 초정밀 퀀텀 미니 LED 광원이 정밀하게 배치돼 뛰어난 밝기와 정확한 명암비, 생동감 있는 색상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집에서 세계적 예술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더 프레임’ 아

트TV 라인업에 98형의 대화면 ‘더 프레임’ TV 모델을 새롭게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뉴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삼성 TV 사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삼성 TV 플러스’도 대폭 강화했다.

뮤지컬, 영웅, 사랑의 불시착 등 대작 뮤지컬 공연과 아티스트 라이브, 엔터테인먼트의 공연을 시작으로 매달 새로운 SM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구글과 공동 개발한 ‘이퀄리자 오디오’ 기능을 지원하는 콘텐츠를 확대해 사용자가 압도적인 음향 몰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론칭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기간에 2026년 삼성 TV 신제품 구매 시 115형 마이크로 RGB 또는 85형 Neo QLED 8K 구매 시 ‘Q시리즈 사운드바(990H)’를 무상 증정하며, 선착순 2000명 대상으로 티빙(TVING) 3개월 프리미엄 이용권 또는 삼성 아트 스토어 연간 구독권을 증정한다.

또 벽걸이 TV 설치가 어려워 구매를 망설이는 고객을 위해 무타공 설치 서비스, 무방스타일 스탠드 등의 설치 솔루션을 최대 50% 할인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AI 구독클럽’으로 TV를 구독하는 고객에게 최대 6년 무상수리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금호타이어, ‘타이어프로 플러스’ 선보인다

온라인몰·멤버십 통합·구매부터 관리까지 원스톱

금호타이어가 기존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 ‘타이어프로 온라인몰’을 리뉴얼해 새로운 멤버십을 결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타이어프로 플러스’를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타이어프로 플러스는 타이어 구매부터 장착,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통합 서비스다.

고객은 온라인에서 제품을 선택하면 전국 타이어프로 유통망과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편리하게 타이어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당일 및 휴일 장착, 타이어 보관, 교체 대행 서비스 등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편의 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상시 5% 할인과 더불어 타이어 공기압, 마모도 점검 등 ‘6대 무상 점검’ 서비스와 디지털 워런티 시스템을 도입해 구매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를 통해 전국 타이어프로 매장과 온라인 플랫폼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



고 매장별 특화된 서비스 운영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고객 중심의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맞춤형 서비스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호타이어는 타이어프로 플러스 출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5월 14일까지 론칭 이벤트를 진행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보스틴다이나믹스, 로봇 ‘스팟’ 세미나이 탑재

단순 명령 실행서 스스로 생각·임무 수행 업그레이드

보스틴다이나믹스가 구글의 인공지능(AI) ‘제미니AI’를 탑재해 한 단계 진화한 4족 보행 로봇 ‘스팟’을 공개했다.

보스틴다이나믹스는 14일(현지시간)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미나이가 적용된 4족 보행 로봇 ‘스팟’의 영상을 선보였다. 영상에 등장하는 스팟은 탑재된 카메라 센서와 제미니AI를 활용해 철근에 적힌 할일 목록을 스스로 읽고 이해했다.

이후 스팟은 명령에 맞춰 현관 앞에 널브러진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하고, 빈 캔을 집어 쓰레기통에 넣었다. 또 바닥에 있는 옷들을 집어 세탁 바구니에 넣고, 가구 아래 쥐어먹은 상태를 확인하는 등 목록에 있던 활동을 순차적으로 수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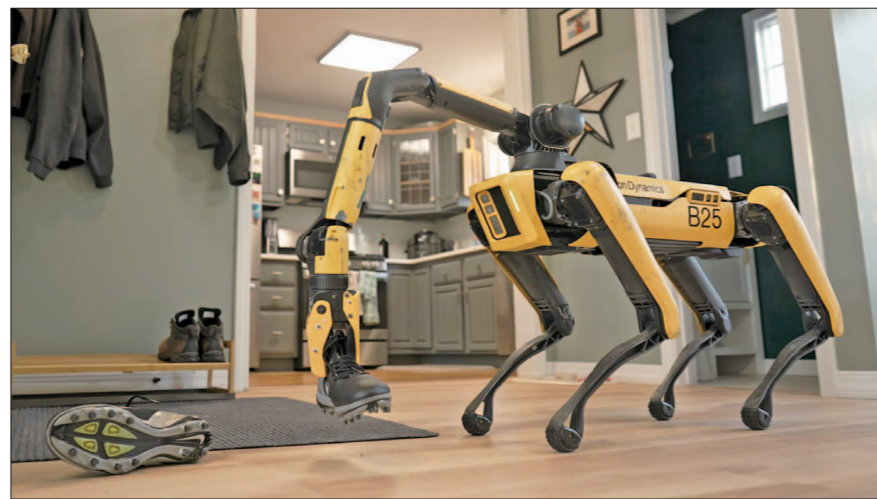
이러 할 일 목록에 강아지 산책시키기가 추가되자 스팟은 야외로 나가 목줄을

잡고 강아지를 산책시키기도 했다. 눈밭에서 강아지와 공 던지기 놀이를 시도하려 해 보지못 밧뚱뚱 쳐다만 보는 강아지에게 스팟이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으로 영상은 마무리됐다.

보스틴다이나믹스가 추가 공개한 영상에서는 스팟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구글의 제미니AI 적용으로 한층 강화된 감도,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을 담았다.

영상에서 스팟은 바닥에 흥건한 물을 감지해 경고하는 한편 계이저를 찾아 온도를 확인하려는 명령에 대답하는 등 현장 데이터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스틴다이나믹스는 이처럼 스마트해진 스팟 뒤에는 구글과의 협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자사 블로그를 통해 공개



스팟이 바닥에 널브러진 신발을 집어 올리는 장면.

했다. 보스틴다이나믹스는 복잡한 산업현장에서 단순히 ‘보는’ 단계를 넘어, 이해하고 판단하며,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수준으로의 진화를 위해 구글의 로봇 전용 AI를 적용하게 됐다.

업데이트를 통해 스팟은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한 주변 정보를 제미니AI로 분

석, 해석해 복잡한 환경 인식, 상황 판단, 작업 맥락 이해가 가능한 지능형 로봇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업계에서는 보스틴다이나믹스와 구글 간 협업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 AI 활용 의미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한전기술지주 대표 공모...에너지 투자·사업화

한전, 내달 4일까지 접수

한국전력공사가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가칭)’의 초대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플랫폼 구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전력은 ‘한전기술지주 주식회사(가칭)’ 초대 대표이사를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오는 6월 출범 예정인 한전기술지주는 공공이 보유한 에너지 신기술과 민간의 혁신 역량을 결합해 창업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투자와 기술을 연계하는 에너지 전문 기술사업화·투자회사다.

한전은 기술지주를 통해 보유 기술의 민간 이전을 확대하고, 동반성장 사업과 연계한 기업 육성, 해외시장 공동 진출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부터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기업 성장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체

계를 구축해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기술사업화와 투자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구조는 공공 기술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민간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 연구개발을 넘어 시장 진입과 산업 확산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AI와 전기화로 가속화된 글로벌 에너지 전환 속에서 신기술과 신사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며 “한전기술지주가 공공 기술과 민간 역량을 연결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모 자격과 세부 사항은 한전과 한국 기술지주회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한전 기술지주사업 태스크포스에 제출하면 된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